

보도 일시	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2. 9. 30.(금)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황미혜 (044-200-5622)

올해도 적조 피해 없이 마무리

- 전남에서 경남까지 내려졌던 적조주의보 해제(9.30.(금) 14:00)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전남 완도군 완도에서 경남 통영시까지의 해역에서 더 이상 적조생물(코클로디니움*)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9월 30일(금) 14시부터 전 해역의 적조주의보**를 해제한다고 밝혔다.

* 코클로디니움(*Cochlodinium polykrikoides*) : 바다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적조를 일으키며,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어류의 산소 교환 능력을 감소시켜 어류가 폐사되기도 함

** 위기경보 단계 : **(주의)** 적조예비주의보(10개체/mL ↑) → **(경계)** 적조주의보(100개체/mL ↑) → **(심각)** 적조경보(1,000개체/mL ↑)

올해 적조는 8월 26일(금) 주의보가 첫 발령 된 이후, 30일에 일부 해역이 경계경보로 격상되는 등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어 36일 동안 지속되었다.

해양수산부는 적조 종합상황실 및 중앙적조대책본부와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, 적조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다.

* 적조피해(억원) : ('13)247, ('14)74, ('15)53, ('16)43, ('18)3, ('19)42, ('20~'21)없음.

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올해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, 현장 어업인들의 노력과 정부 및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.”라며, “적조 대응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황미혜 (044-200-5622)
	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	책임자	과 장 정래홍 (051-720-2210)
		담당자	연구사 손문호 (051-720-2261)
	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	책임자	과 장 황형규 (051-720-2410)
		담당자	연구사 최 진 (051-720-2431)



□ 적조 발생 개요

- 적 조 생 물: 코클로디니움(*Cochlodinium polykrikoides*)
- 최초 발생일: 8월 26일(95개체/ml, 양식생물 피해 우려, 주의보로 선제적 발령)
- 지속 기간 및 최대 밀도: 36일 / 8,500개체/ml
- 발 생 범 위: 전남 완도군 완도 ~ 경남 통영시
- 피 해 현 황: 없음

□ 적조 특보 발령 현황

발령 일자	특보 내용	대상해역
8.26.	주의보	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~ 여수시 돌산도
8.30.	경계 경보 주의보	전남 고흥군 지죽도 ~ 여수시 돌산도 전남 여수시 돌산도 ~ 경남 남해군
8.31.	주의보	전남 여수시 돌산도 ~ 경남 통영시
9.8.	주의보 경계 경보	전남 완도군 완도 ~ 고흥군 거금도 전남 고흥군 거금도 ~ 여수시 돌산도
9.23.	주의보	전남 고흥군 거금도 ~ 여수시 돌산도
9.30.	주의보 해제	전남 완도군 완도 ~ 경남 통영시

